



◇인도 사르나트지역 힌두교도 5백명이 불교에 귀의하는 개종법회를 지난 1월31일 봉행했다.

인도 힌두교도 불교귀의 '붐'

인도 사르나트 지역 힌두교도들이 대거 불교로 귀의하고 있다.

부처님이 성도이후 다섯 비구에게 첫 법륜(法輪)을 굴린 성지 사르나트에서 지난 1월31일 5백명의 힌두교도가 불교로 귀의하는 개종법회가 열렸다. 이 지역 유일의 한국 사찰 녹야원(주지·도용)이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모신 가운데 봉행한 이 법회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많은 힌두교도들의 개종이 이뤄질 것 이란 현지인들의 전망이다.

이날 개종을 한 힌두교도들은 작년부터 개종의사를 밝히며 녹야원들 사원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힌두교 전통에

한국사찰 녹야원 5백명 '개종법회' 인도회결성 교리공부·수행법 배워

의한 계급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자비와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개종 이유.

부처님의 첫 전법지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에서 거행된 힌두교도들의 개종법회는 청법(법회)으로 시작됐다. 청법의 의식은 새로 귀의하는 힌두교도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법문에 의지 하오니 법을 넓게 퍼주십시오' 라고 법을 청하는 것이다. 이어 한국과 현지 스님들이 3구의 5

불교로 귀의한 힌두교도들은 신도회를 결성, 현지의 인도 스님과 한국스님들을 모시고 녹야원에서 정기법회를 갖게 된다. 이들은 법회에서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을 배우게 된다. 녹야원은 앞으로 개종 의사를 밝히는 힌두교도들을 불자로 받아들이며 대형 개종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힌두교도들의 불교귀의는 사르나트 지역뿐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는 현지의 한국스님들은 불교계가 국적을 넘어 보다 폭넓은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연태 기자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 결성

성직자양성대학원 '백지화' 추진...18일 범불교도대회

정부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조계종 총무원장)가 지난 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결성됐다.

교육계 법조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조동종 본원종 등 1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와함께 중·고등학교 종교교과목 개설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18일 오후3시 조계사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책위 한성법교수(교수불자연합회 회장)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부당성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며 토론자로써는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종석스님(승가대

교과처장)이 참가한다.

세미나에 이어 대책위는 조계사 경내에서 범불교적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전국 각 사암에 현수막을 걸어 불교계의 단합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 국민회의 손세일 정책의장은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회실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가 특정종교 위주로 돼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성직자양성문제는 해당 종단단체에서 자율적인 체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사찰등급 확정 본사 20개·말사 252개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일주)는 지난 5일 총무원 4층에서 회의를 갖

고 교구본사 20개, 말사 2백52개의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불국사(1등급) 신홍사(6등급)가 상위등급을 받는 등 각 사찰의 예결산에 따라 총 22개로 나뉘어 등급이 결정됐다. 사찰등급은 당해사찰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한편 용주사 직지사 통도사를 비롯 5개교구와 36개 직할사찰은 서류미비로 등급심사가 보류됐다.



◇정부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결성됐다.

"승가대 김포학사 계획대로 이전을" 수완스님, 공신력 우려

중앙승가대 전 법인사무처장 수완스님이 제3의 학사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안성부지의 문제점을 지적, 중앙승가대학이전 불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수완스님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청, "김포학사 이전이 무산이 될 경우 불교계의 공신력 추락은 물론 중앙승가대 정 규대승적 등 이전불사 자체가 어렵게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청원

법국민추진위, 청와대에 고도보존법·문화특별법 촉구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를 비롯한 각계 대표 3백여명은 지난 11일 한국일보강당에서 대정부청원 및 성명대회를 개최하고 고속철도 경주 통과안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 고도로 후손에 보존되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세

계적인 문화도시"라고 강조하고 △경주고도의 문화보존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고도보존법과 문화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후 이기영추진위원장 등 대표들은 청와대를 방문, 16만8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와 성명서를 접수 시켰다.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와 관련해 2백여단체가 가입한 추진

위원회를 비롯 고고미술학 관련 17개 학술단체 및 문화재위원회, 경실련 등 24개 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반대사를 밝혔다.

한편 추경석 건설교통부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에서 부산으로 직진하지 경주를 통과하는 것은 이득(경주)을 포함 울산·포항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다. 이 지역(경주) 주민도 대부분 당초 노선인 현산강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경주 통과안의 강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장관은 "문화계 학계 불교계에서 반대견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 불교지도자 연수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성호)는 부산불교 중·고등학교생 지도위원회(회장 이종관) 주관하여 지난 1일 김천직지사, 팔공산 동화사 등지에서 청소년 불교지도자 불교문화탐방연수회를 가졌다.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96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추진중인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조직과 관련 △청소년 학술세미나 △교리 퀴즈대회 △불교청소년 캠프 △불교연극제 △청소년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불교 청소년의 해' 단체인명 '불자연합 파라미타'로 확정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가 불교청소년의 해 단체인명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성타)은 지난 5일 포교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청소년의 해 단체인명을 확정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참불연, Youth Buddhist Association Paramita)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적 청소년을 사찰단체와 학교단 및 특수단체(근로청소년, 소년원, 장애인, 해외지부 소년)로 구분하여 중·고등학생을 15개지부(광역시 지부 6개, 도지부 9개), 183지회를 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라미타는 불교청소년의 해 문화사업으로 연합캠프(8

일), 청소년 창작 찬불가 경연대회(6월),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연 2회), 외래폐회문화추방 캠페인(연 2회) 등을 전국규모 사업으로 하며 지역별 사업으로는 청소년 학술 세미나(5월), 서울 경주 남산 살리기 환경대회(10월), 청소년 후원의 밤(12월)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라미타는 지난 8일부터 단체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12일 울림파크도경기장에서 서울 경기지부 발대식 및 문화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일절 반일대회 부산대불청등 10개 단체

대불청 부산지부(회장 이상대)를 비롯 불교지비인, 종교인

평화회, 광복회 부산지부, 부산시(민운등단체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들은 3·1절인 지난 1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3·1 민족자주정신 계승과 일본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부산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일제잔재 청산 다짐과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장기가 그려진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 뒤 초량동 일본영사관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벌였다.

대보름 방생법회 대구사원련 1만명 동참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병)는 지난 4일 경주감동 나정 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80여개 회원사찰을 비롯 대구광역시신도회, 대구직장불교협의회, 대불련 대·경지부 등에 소속한 사

부대중 만여명이 동참하여 자비방생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방생법회에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풍요제 및 달집점화가 진행됐다.

부불련 '종교편향 관련자 인척 요구'에 신한국당 부산지부 '대통령 건의' 답변

김대통령의 종교편향 정책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7인대책위원회(위원장 도봉)가 지난달 28일 청와대 비서실장, 국방장관, 안기부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김정수)는 지난 5일 부불련 앞으로 보낸 회신을 통해, 관계자 인척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불교계 대책위원장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신은 또 교가위의 '성

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전면 백지화 내지 국회활동을 통해 적극저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인스님 39명 배출 통도사 승가대학

통도사 승가대학(학장 목산)은 지난 3일 경내 감로당에서 제4회 졸업식을 갖고 대교과 13명, 사집과 12명(수료), 사미과 14명(수료) 등 총 39명의 학

인스님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승가대 강주 현근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부산실업인회 창립 5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7일 해운대 마리나센터에서 범어사 주지 성호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총회를 봉행했다.

마음 심세를 알 수 있는 길

이 우주의 근본도 태양의 근본도 세상의 근본도 마음이다. 마음의 씨가 아니면 어느 것 하나도 형성시키지 못했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우쳐 알 때에 삶속에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어 각기도 미레도 알 수 있다. (한마음은연)

협찬 한마음선원 법행체회

대중 불교 3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대구 삼영불교서점 / 이승환 회장 · 14
쇠북소리 · 선거와 거짓말 / 임현영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최고급 승복 주문반음"이라 / 김정자 · 12
대중불교시사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옥/조순환 · 48

진단 / 직장기능불교 현황 · 76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야 하나 · 82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선화일편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우리 절의 신령,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 현장 · 72
해외불교석학열전(3)
알렌 와츠(Alan Watts) / 정희수 · 94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봄의 향연 / 원성 · 53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열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해의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선정 · 86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3월,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남한강변의 썩어지른 절들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일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문사지, 신록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기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전 야외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참가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접수 · 전화(02)752-7047, 764-1614

은행지리번호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동(산천기행)

밀교학원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뱃따파리아 지음 장의 옮김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단트라와 불교 단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자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술을 개설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